

“유지경성 자세로 섬박람회 성공·미래 도약”

병오년 새해설계



정기명 여주시장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지역의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여수의 새로운 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관람객 300만·석유화학 위기 극복

복합해양관광 거점·정주여건 개선

‘여수형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도

정기명 여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丙午年)은 험하게 달리는 붉은 말의 해”라며 “시의 모든 행정력과 시민 역량을 결집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꼽으며, 박람회 개막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진도지구 주행사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8개 전시관별로 특색 있는 콘텐츠를 구

축해 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개도와 금오도 부행사장을 체험형 공간으로 마련하고, 거문도는 ‘K-관광 섬’ 육성과 근대역사문화공간 마련을 통해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임시주차장 조성,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해 국내의 관람객 300만명 목표를 달성하고, 행사장을 잇는 오토 투어 등으로 여수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발판으로 산업 구조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운전자금 대출 이자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미래혁신지구

와 AX실증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정 전환을 돕는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체감형 소비 진작에 나선다.

또한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의 입지도 굳히기 위해 무술목 관광단지와 가막만 일원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복합해양레저관광 클러스터’ 조성에도 2030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여수박물관 건립, 전남관 미디어아트 사업, 선소테마정원 완공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콘텐츠를 확충하고, 여수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문화 부흥의 구심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며,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발맞춘 ‘여수형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도 구체화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읍촌 제2산단 조기 조성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어린이 복합 독서문화공간 개관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아울러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신속히 추진해 폐기물 처리 기반을 다지고 소제지구 택지 개발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정기명 여주시장은 “올해는 여수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천5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수의 더 큰 비상을 위해 섬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군 ‘1만원 아파트’ 100세대 조성한다

국토부 공모 선정...419억 투입

1월 일일에 2028년 하반기 준공

60·85㎡ 평형대 주거환경 공급

장흥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1만원 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한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남도 ‘전남형 만원주택’ 선정에 이은 성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군의 주거 복지 정책이 중앙부처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국비 등 총사업비 419



9억원을 투입해 장흥읍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조성한다. 사업은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단지는 기존의 비좁은 임대주택 이

미지를 탈피한다. 전용면적 60㎡와 85㎡ 위주로 구성해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청년 가구가 여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감도〉

입주자들은 월 1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과격적인 주거 혜택을 앞세워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 근로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젊은 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단지 위치 또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읍내 중심지와 인접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 친화 도시 장흥’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군, 23일까지 원예·특작분야 사업 접수

33억 규모...시설·농자재 등 지원

화순군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 도모를 해 올해 원예·특작분야 사업 지원에 나선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법인이며, 총사업비는 33억3천400만원 규

모다.

대상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설 지원 ▲농자재 지원 등 3개 분야 27개 사업이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대표 작물인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콩, 토마토 등의 품종 갱신과 양액, 방제 약품을 지원한다.

시설부분 지원사업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소규모 시설원에 농가 현대화 지원 ▲ICT-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ICT 융복

합 에너지 절감 시설, 재해 예방 시설 구축 등을 원조한다.

농자재 지원사업에는 ▲시설원예(전라품목) 양액 지원사업 ▲한약재 유통 약용작물 육성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며, 비료(질산칼슘), 양액, 작물보호제, 생분해성 멀칭필름 등을 보조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달 군수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것”이라며 “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건의 사항은 별도 수요 조사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지난해 11월 순천시청년센터에서 열린 ‘2025 성장프로젝트&도전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평가서 ‘우수’

순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순천시와 (사)일미래센터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하

는 통합형 고용지원 사업이다.

시는 초기 상담을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을 총 50회에 걸쳐 운영하며, 1천200명 목표 대비 1천301명이 참여해 108.4%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참여자 평균 만족도 4.89점(5점 만점)을 받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역 산업 구조와 청년수요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청년고용정책 연계

율 88.9%, 사후관리 연계율 94%를 달성해 지속 가능한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밖에 전국 청년가게 중 최초로 부모 대상 진로·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 개인을 넘어 가족 단위의 지지 기반을 확대한 점도 이번 성과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고흥군이 올해부터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진은 단체관광객들이 거문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 여행사·학교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8인 이상 시 1인당 최대 3만원

고흥군은 4일 “여행사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내외국인 관광객 8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관광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일 관광의 경우 관광객 1인당 1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거나, 버스 1대당 5만원 상당의 고흥군 특산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숙박 관광의 경우 1인당 최대 3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나 학교는 관광 실시 1일 전까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내년부터 우주발사전망대와 천문과학관 입장료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하는 신규 시책도 병행해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고 실질적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이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상 시상·설명회 성료

‘우분트’ 인성교육·글로벌 체험 추진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유·초·중·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담양교육상 시상식 및 2026 담양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범미경 담양남초 교장 ▲김영희 담주초 교장 ▲진덕화 한재중 교사가 ‘제9회 담양교육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담양교육’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주요

시책이 발표됐다.

지원청은 올해 핵심 과제로 타인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우분트 인성교육’을 제시했다. 이를 학교 교육 전반에 확산시켜 학생들이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중학생 글로벌 문화체험’을 확대 운영한다. 학생들이 해외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김진홍 담양교육장은 “우분트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돕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체감하는 담양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광주보훈병원, 군민 건강증진 ‘맞손’

장성군은 “최근 광주보훈병원과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이삼용 광주보훈병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가했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군민들이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의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광주보훈병원은 접수부터 진료·치료·수납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MOU를 통해 체계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발전에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